

보살의 그리움은 '맑고 향기롭게' 무소유로 거듭나

무소유와 종교상생의 아이콘 길상사(吉祥寺)

불교에서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을 삼독(三毒)이라 한다. 그 가운데 탐욕이 제일 앞선 것은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성냄과 어리석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눈 귀 코 입 몸 그리고 마음에 드는 대상에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을 없을 것이다. 그런 탐욕 때문에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다.

탐욕 지면에는 분별심이 있다. 맛있다는 것, 고급이라는 것, 남보다 우월하게 보일 수 있는 것에 대한 분별은 탐욕을 불러일으킨다. 그 중에서 남보다 자신을 우월하게 보일 수 있는 것에 대한 탐욕은 남다르다. 그런 마음을 노려 적은 수량을 만들어 비싸게 파는 것이 일명 명품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명품 애착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유명하다. 똑같은 물건이지만 다른 나라보다 비싼 가격을 불러도 산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면 기죽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없으면 혼자 돋보이기 위해 사야 한다.

부처님은 교단을 세우고 수행자들을 이끌 때 사의법(四依法)을 지키라 하였다. 식사는 걸식을 하고, 옷은 시신을 썼던 분소의였고, 잠은 나무 밑에서 자야 했다. 다만 소 오줌을 밟아주지 않는 진기약만 가지도록 했다. 모두 탐욕을 경계한 무소유의 실천이었다. 그렇지만 부처님 사후 이 법은 유지되기 어려웠다. 결국 지키려는 보수와 바꾸려는 진보로 나누어졌다. 처음의 분열은 20부파가 생길 때까지 계속됐다. 그만큼 탐욕은 무섭다.

세간사에도 탐욕은 분쟁을 야기한다. 조상제사를 위해 장남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면 분쟁이 생겨 형제들의 왕래가 끊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재벌가의 상속문제가 법정까지 비화되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다.

어느 시인이 표현했듯 성북동 비둘기들은 채석장 소리에 놀라 그곳을 떠나고, 그 공간에 큰집들이 들어섰다. 그런 집들 사이로 절이 아닌 듯 들어선 사찰이 있다. 얼마 전까지 법정이 회주로 있던 길상사이다. 이곳의 건물은 사찰로 지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 한옥풍이다. 심지어 음주가가 불편하게 열렸던 고급요정임을 생각할 때 부처님을 모신 공간이 됐다는 것이 어색할 정도이다.

이곳은 대원각이란 요정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이권을 쫓아 불나방처럼 달려들던 곳이다. 이곳 주인은 김영환이었다. 뒤에 길상화(吉祥華)란 법명을 받았다. 1916년 서울 관철동에서 태어난 그녀는 가난한 탓에 15살에 시집갔지만 남편이 일찍 죽었다. 살길이 막막했던 그녀는 1932년 조선 권번에 들어가 기생이 됐다. 미모가 뛰어난 덕분에 금방 서울의 권번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기생이었지만 삼천리문학에 글을 발표할 정도로 재능이 뛰어났다. 글씨는 물론 그림에도 일가견이 있었다.

흥사단에서 그녀의 재주를 눈여겨 본 신윤국이 동경 유학을 보냈다. 그 뒤 스승이 투옥 되었다는 소식

우리나라 제일 요정 대원각
길상화 보살 무소유 실천으로
부처님 도량 길상사로 탈바꿈
회주 법정 스님 법회때나 들르던 곳



길상사 회주였던故 법정 스님

을 듣고 귀국해서 함흥 감옥으로 찾아 갔다. 스승은 만나지 못했으나 평생의 사랑을 만났다. 함흥 영생 여고교 교사들 회식 장소에 나갔다가 영어 교사 백석을 만나 것이다.

운명적인 만남은 달콤한 사랑을 남긴다. 그런데 달콤한 사랑일수록 오래가지 못하고 가슴 아픈 사연을 끝낸다. 백석은 부모가 둘 사이를 반대하자 만주로 떠나자고 제안하였다. 그녀는 백석을 생각해 가지 않았다. 잠시 떨어져 있으면 될 줄 알았던 이별이 6·25사변으로 영원한 이별이 되었다. 백석을 찾기 위해 혼자서 대원각을 냈다. 그렇게 시작한 요정은 날로 번창하여 우리나라 제일의 요정이 되었다. 그런 그녀를 대원각을 드나들던 남자들은 넘치자 자신의 마음을 전해보았지만 마음속엔 늘 백석뿐이었다. 1999년 83세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사랑하는 백석을 그리워하며 모든 삶을 보냈다.

죽음이 임박해지자 김영환은 자신이 운영하던 요정을 법정에게 맡겼다. 아무런 조건 없이 천역에 가까운 재산을 넘긴 것이다. 그녀는 천역이란 돈이 백석의 시(詩) 한줄 만도 못하다고 하였다. 이 정도면 무소유의 경지에 오른 것이 아닐까?

이런 거액을 받은 법정 역시 무소유의 수행자였다. 그의 이력을 보면 그 흔한 사찰 주지를 지낸 적이 없다. 그는 1932년에 전남 해남에서 출생해 목포에서 성장했다. 한국전쟁을 겪으며 삶과 죽음에 대



길상화 보살이 평생 백석 선생을 그리워하며 보냈던 대원각은 법정 스님을 통해 길상사가 되었다.

한 고뇌를 시작했다. 1953년 전남대 상과대학에 입학했지만 공부가 들어오지 않았다. 진리의 길을 찾아 떠돌아다니다 1954년 효봉을 만났다. 대학 3년 수료 후 1956년 통영 미래사에서 효봉을 은사로 출가했다. 그는 부처님 법담에 살고 싶었다. 세간의 소유를 떠나 출세간에 왔는데 출세간에서 소유한다던 그건 불교가 아니라 생각했다. 그래서 주지직을 비롯하여 이익에 탐하지 않는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겠다고 서원했다. 그렇지만 불교발전과 사회참여에 전념했다. 비구계를 받고 서울 불은사에서 운허 스님과 역경사업을 시작한 이래 1970년대까지 그 일에 헌신했다. 세간에서 말하는 직책을 가져본 적도 없다. 불교신문 편집국장당 역경국장, 송광사 수련원장 및 보조사상연구원장 등이다. 세정 돈 되지 않는 자리였다.

무소유의 삶을 지향했지만 세상과의 소통은 지속했다. 4·19와 5·16을 겪으면서 독재화가 지속되자 여러 사회 인사들을 가까이 하면서 민주주의국민회의와 유신철폐 개헌서명운동에 참여했다. 바뀌지 않는 사회와 자신의 출가에 대한 검증을 위해 1975년 송광사 뒷산에 불일암을 지어 20년을 홀로 수행자의 삶을 살았다. 속세를 멀리하자 자연이 눈에 들어왔다. 가슴으로 느낀 자연에 대한 서정을 글로 세상과 소통했다. 1994년 순수 시민운동 단체인 '맑고 향기롭게'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마음

에서 시작했을 것 같다.

그런 그에게 최대의 고비가 찾아왔다. 1997년 대원각 주인이 무주상 보시를 한 것이다. 천역에 이르는 재물이었다. 마음의 갈등은 없었을까? 사람들의 이목이 성북동에 쏠렸다. 무소유에 익숙했던 스님은 보란 듯이 시주받은 대원각을 길상사로 탈바꿈 시키고 회주로 지냈다. 2003년 12월 그마저 던져버리고 강원도 산골로 들어가 차를 마시며 지냈다. 한 달에 한번 법회 때만 길상사를 들렀다.

2010년 3월 입적한 그는 생전 남긴 유언에도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다면 모두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에 주어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활동에 사용하기를 요청했다.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더라도 마음속에 있는 스승을 따라 청정수행에 매진하여 자신 안에 있는 불성을 드러내기 바란다며 수행 정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무소유를 실천한 두 분이 떠나고 난 길상사에는 미소를 머금은 관세음보살상이 불자들을 반긴다. 가만히 보면 전통적인 관음의 상호가 아니다. 어딘지 모르게 천주교 성모상 분위기가 풍긴다. 이 관음상을 조각한 작가는 천주교 신자이다. 관음을 조성해 달라는 법정의 청을 듣고 많이 고민하였다. 그 고민을 들은 천주교 원로신부는 교리적으로 문제될 게 없으니 흔쾌히 하라고 권하였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불교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다. 관음에 대해 잘

몰랐던 작가는 스님을 만나 머리에 쓰고 있는 관과 손에 들고 있는 병 그리고 손바닥을 펼쳐 올린 까닭을 물었다. 스님도 화관(花冠) 정병(淨瓶) 그리고 구고(救苦)라고 답했다.

짧은 물음에 외마디 답이었다. 작가는 '꽃 관, 맑은 물, 세상고통을 구한다'는 세 마디 말을 듣는 순간 작품은 마음속에 만들어졌다. 다음은 좋은 돌을 구해 조성하는 일이었다. 마음에 느낌이 온 일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법이다. 그렇게 조성된 관세음보살상은 길상사 앞마당에서 불자들을 반기고 있다.

점안식 날 법정은 관세음보살과 성모마리아는 그 상징성이 같다는 말을 하였다.

그 자리에서 작가는 인사에서 "땅에는 경계가 있지만 하늘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종교가 울타리를 허물면 한마당이 될 것입니다."고 하였다.

종교의 가치는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다. 신의 뜻으로 구원받던 무소유를 실천하여 스스로를 구원하던 간에, 길상사에 가면 참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한다. 사랑, 무소유, 그리고 종교 간의 상생. 탐욕에 물든 우리의 정신을 맑고 향기롭게 하는 사찰이다.



김경집/전주국대 교수

특강안내

수정기공 Soojung Touch Therapy
대한민국 인증대상(기공부문)
신지식 서비스기업 대상

더 많이 필요없는
환상의 통증치유
S.T.T
손을 대지 않습니다

교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강의 : 매월 첫주 시작 4회 완성
장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모집인원 : 매회 8명 이내
연락처 : 010-3463-7806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한 불전함

원목 법탁
움직이거나
털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원목 법상

Naver 무인경보불전함
서원불교 핫 043-647-2378, 011-467-1472

영남 범음범패 전문 교육

전통사찰 안정사 영산재 교육원
불교의식 (범음, 범패) 학인모집

- 1) 초급반 : 사물(요령, 목탁, 태징, 범고) 다루는 법, 도량석, 쇠송, 각단예불, 의식
- 2) 중급반 : 상주권공, 신중작법, 대령관곡, 천도제(49제), 각종의식
- 3) 작법반 : 오희양작법, 다계작법, 요잡작법, 천수바라, 요잡바라, 관음바라, 사다라니바라
- 4) 고급반 : 운선계, 삼귀의작법(초급, 중급 수료자에 한함.)

□ 개강일시 : 2012년 2월 7일 (화요일). 매주 화,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6시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사진2장 (상시 모집)

* 본원은 종파를 초월한 교육도량으로써 수료증 수여, 승려후보생도 수강 할 수 있으며 승려수계특도, 포교원 지도원의도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전통의식을 수강 할 수 있습니다.

전통사찰 안정사 강원
(사)안정사 영산재 보존회 영남범음범패 교육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954-3 055)649-6711
팩스 055) 649-6712 HP : 011-874-6775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배송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계좌 : 농협 100023-56-156761(조영숙)